

자금성 디자인 공방: 청 황실 조판처

조판처(造辦處)는 청대(1644~1911) 황실에서 쓰거나 궁중에 진열하는 각종 기물을 제작하고 수리하던 기관이다. 강희 연간(1662~1722)에 자금성 안에 설치되어 옹정(1723~1735)·건륭(1736~1795) 연간에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20세기 초에 폐지되었다. 수십 개의 전문 공방이 마련되었고, 중국 각지에서 모은 솜씨 좋은 장인이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일상용품부터 정교한 공예품까지 다양한 기물을 만들었다. 조판처에서 제작한 기물은 청 궁정의 미감과 뛰어난 공예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면서 오늘날 베이징 고궁박물관이 자랑하는 방대한 소장품의 주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는 베이징 고궁박물관 소장품 15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아 조판처의 역사와 조직을 살펴보고, 재료 활용과 제작 과정 및 공예로 이룬 성취와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조명한다. 조판처를 이처럼 본격적으로 다루는 대규모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의 디자이너와 여러 창작자가 전시 디자인에 참여하여 청 궁정의 미학을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내고, 청대의 삶과 디자인이 오늘날과 주고받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 전시는 홍콩고궁박물관과 베이징고궁박물관이 공동 주최한다. COLLECTIVE Studio는 전시 디자인과 시공 방향을 제시하였고, Design and Cultural Studies Workshop은 전시 인포그래픽 디자인의 일부를 담당했다.

조판처: 황실 전속 공방

조판처는 청나라 황실과 궁정에서 사용할 기물 제작을 전담한 기관으로, 황실 살림을 총괄하던 내무부(內務府) 소속이었다. 강희 연간(1662~1722)에 자금성 안에 설치한 뒤 원명원(圓明園)에도 분소를 마련하였고, 각지의 특화된 공예 기술을 끌어모아 전국 규모의 생산망을 구축하였다.

내부에는 작업 관리, 창고, 문서를 각각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고, 작업장은 기술과 재질을 기준으로 “작(作)”, “처(處)”, “창(廠)”, “관(館)”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운영하였다. 관리는 팔기(八旗) 소속 관원이 맡았고, 전국 각지에서 뽑혀 온 최고의 장인은 물론 유럽에서 건너온 기술자도 함께 일하였다. 청대 궁정 공예의 기술 혁신과 중국-유럽 간 활발한 문화 교류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물 제작과 공예 혁신

조판처의 기물은 하나같이 최상급 재료로 빚었고, 그 원료는 여러 곳에서 엄선하였다. 영토가 넓고 주변 지역과 교류가 잦았던 덕분에 동북, 남해, 서역 등지에서 온갖 귀한 재료를 구할 수 있었다. 전대(前代)에서 내려온 옛 물건도 그냥 두지 않고 손을 봐서 새로운 쓸모와 모양을 입혔다. 재료 못지않게 중요했던 건 꼼꼼하고 엄격한 제작 과정이었다. 본격적인 제작에 앞서 장인은 여러 시안을 올려 황제의 검토를 받았고, 몇 차례 손질을 거쳐 정식으로 허락이 떨어져야 비로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옹정(1723~1735)·건륭(1736~1795) 연간에는 오랜 전통 공예 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바다를 건너온 새로운 기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 무렵 조판처에는 시계 제작, 옥 조각, 법랑, 칠기, 동기, 유리 제작, 상아 조각 등 여러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장인이 모여들어 세밀하게 역할을 나누면서도 서로 손발을 맞춰 일했다. 끊임없는 시도와 개선 끝에 조판처는 청대 공예의 수준을 정점까지 끌어올렸다.

창의적 디자인과 진열 방식

물건은 왜 만들어지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 20세기 초 현대 디자인계가 던진 질문이지만, 청대 궁정에서도 비슷하게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브랜딩, 복고풍, 착시처럼 오늘날 디자인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개념이 조판처의 설계 속에도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청대 궁정은 나름의 독특한 수납·진열 방식도 발전시켰다. 이를테면 특별히 맞춤 제작한 포장과 받침으로 골동품이나 일상 기물을 보관하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근사하게 전시했다. 실용적인 목적을 넘어, 서로 다른 재질과 시대의 물건들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궁정만의 시각 언어였던 셈이다.